

# 相對的 貧困感과 經濟福祉政策

安 國 臣\*

.....〈目 次〉.....
I. 序 論
II. 相對的 貧困感：定義, 現況 및 模型化
III. 相對的 貧困感을 受容한 基本模型
IV. 基本模型의 擴張
V. 結 論
參考文獻

## I. 序 論

우리 經濟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高度成長의 결과 絶對貧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相對貧困의 문제가 등장하였으며 相對的 貧困感이 크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에서 相對的 貧困感이 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은 社會와 어떻게 對比될 것인가? 主流經濟理論에서는 相對的 貧困感을 다루지 않고 있다. 主流經濟理論이 생성된 토양은 先進國인데 先進國에서는 相對的 貧困感이 社會問題化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큰 相對的 貧困感을 主流經濟理論의 틀안에 어떻게 受容할 것인가? 受容할 때 종래의 전통적인 經濟理論은 어떻게 修正될 것인가? 相對的 貧困感이 문제되지 않는 사회와 비교하여 分配政策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本稿의 研究主題이다.

本稿의 基本 메시지는 相對的 貧困感을 이론틀 속에 수용할 때 主流經濟學界의 지혜로서 받아들여졌던 效率과 衡平은 '큰 相衡關係'(big trade-off)라는 定理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相對的 貧困感을 社會學에서 사용하는 相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이 논문은 中央大學校의 學術研究補助費의 지원을 받았으며, 韓國經濟學會의 「第3次 國際韓國人經濟學者學術大會」(1988.8.2~8.3, 서울)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을 읽고 좋은 논평을 해 주신 張五鉉 教授(東國大)에게 감사드린다.

對的 剝奪感(the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 模型化할 때 일반적으로 效率과 衡平은 相衡되는 것이 아니라 補完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本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다음 節에서 相對的 貧困感의 定義와 우리 나라 現實을 살펴 보고 相對的 貧困感을 巨視模型 속에 어떻게 受容할 것인가를 논한다. 제3절에서는 相對的 貧困感이 수용된 純粹交換經濟 巨視模型에서 效率과 衡平이 어느 수준까지는 補完的이어서 衡平을 제고시키는 것이 동시에 效率을 제고시키는 것임을 보인다. 제4절에서는 生産이 있는 경우에 3절에서 다룬 基本模型이 어떻게 修正·擴大될 것인가를 논한다. 마지막 제5절은 結語로 가름한다.

## II. 相對的 貧困感 : 定義, 現況 및 模型化

우리 나라에서 相對的 貧困感이라는 용어는 日常用語가 되다 시피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經濟學 文獻에는 絕對貧困(absolute poverty)에 대비되는 相對貧困(relative poverty)의 概念이 나올 뿐 相對的 貧困感이라는 概念이 잘 정의되어 나오지 않는다.

相對的 貧困感은 말 그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자기와 비교되는 다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相對的 貧困感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相對貧困을 下位 20%나 40% 所得階層, 또는 平均所得의  $\frac{1}{3}$  이나  $\frac{1}{2}$  이하로 책정하여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모든 사람들이 最上位 1%의 所得階層과 자기를 대비하면 相對的 貧困感을 가지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99%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대비시키는 比較準據集團(comparative reference group)은 上流層이며 따라서 相對的 貧困感이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이나 資料로 뒷받침되는 것 같다. 우선 20~3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貧富의 隔差가 심화되었고, 財閥을 포함한 上流層의 富의 蓄積過程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視角이 지배적이며, 上流層의 無分別한 誇示的 消費에 대하여 강한 拒否感 내지 違和感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가 1986년 12월에 실시한 「國民意識調查」를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所得隔差問題의 심각성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49.8%가 “아주 심각하다”고 의식하고 있으며 39.9%는 “조금 심각하다”고 의식하고 있다. 이는 所得隔差問題가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0.3%,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10.0%인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같은 조사에서 2~3년전의 所得

1) 鄭英一(1987) 참조.

分配를 비교할 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所得隔差가 줄어 들었다”는 견해가 전체의 18.3%인데 비하여 “격차가 심해졌다”는 비율은 46.6%에 달하여 富益富 貧益貧 현상의 진전이 분배에 관한 國民들의 支配的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재벌과 서민간의 갈등 내지 거리감에 관하여는 “아주 작다”가 0.6%, “작다”가 1.8%인데 반하여 “아주 크다”가 46.9%, “크다”가 41.2%로 나타난다.

1987년 6월 9일 韓國日報에 보도된 中産層의 意識調査에서는 “經濟成長을 이유로 한 大企業에 대한 政府의 特惠가 대폭 억제되어야 한다”에 찬성한 응답자가 전체의 76%이다. 이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에 88%, “부자들은 상당수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다”에 56%, “상류층은 庶民의 처지에 대해 무관심하다”에 8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을 5월에 실시되어 6월 16일 東亞日報에 보도된 여론조사에서는 “오늘날 우리사회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 하나를 고르라”는 問項에 「不公平」이 2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經濟成長」(12.6%)의 두 배에 달한다. 4반세기가 넘는 지속적인 高度成長에도 불구하고 經濟成長보다 不公平이 훨씬 높은 비중으로 우리 사회를 대변한다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가 不公平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이처럼 不公平에 대한 인식이 클 때 所得分配의 不公平에 대한 容認度가 낮고 相對的 貧困感이 크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相對的 貧困感이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라면 이를 經濟模型에 受容하고 相對的 貧困感이 수용되지 않은 模型과 비교하여 理論的·政策的 示唆點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相對的 貧困感을 어떻게 模型에 受容할 것인가?

상대적 빈곤감을 모형에 수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유층의 소득이나 富가 貧困層과 서민들의 그것보다 높을수록 빈곤층의 효용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로는 政經癒着에 의한 부정·부패, 「큰손」들의 不勞所得, 地下經濟등 불공평한 제도가 상대적 빈곤감을 지아내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나 유언비어가 나돌 때 빈곤층의 효용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情報經濟學의 側面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근로조건의 劣惡이 상대적 빈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화폐소득이 늘어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負의 心理所得(psychic income)도 커지는 것으로 모형화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富裕層의 誇示的消費가 높을수록 빈곤층의 효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筆者는 우리 사회에 相對的 貧困感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도 富裕層의 誇示的 消費 때문이라고 보고 上流階層이 誇示的 消費를 많이 하면 할수록 中下流層의 혐오감이 커지는 것으로 相對的 貧困感을 표시하고자 한다. 우리 社會 富裕層의 一流商標 選好, 호

화주택 및 고급승용차, 골프, 料亭, 카바레, 룸·살롱,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사우나 등 이른바 享樂消費가 늘어날수록 계층간 違和感을 느끼는 庶民層의 效用이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에서 「사촌」을 「上流層」으로, 논을 享樂財로 대치시킨 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相對的 貧困感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相對的 剝奪感과 일맥상통한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狀況이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相對的 剝奪感이라 한다. 자기의 必須品이나 享樂財의 소비수준과는 관계없이 상류층의 誇示的 消費를 보고 負의 效用을 느낀다는 점에서 筆者가 모형에 수용하고자 하는 형태의 相對的 貧困感은 相對的 剝奪感과 같다.

### Ⅲ. 相對的 貧困感을 受容한 基本模型

앞 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巨視模型에 相對的 貧困感을 수용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모형은 金大模·安國臣(1987)에서 취하였다.

#### 1. 基本模型

두 階層과 두 財貨만 있는 完全競爭의 純粹交換經濟를 상정한다. 이 경제에는 富裕層과 庶民層(혹은 貧困層)의 두 계층이 있고, 必須品과 奢侈品(혹은 享樂財)의 두 재화가 있으며, 생산은 없이 交換만 完全競爭市場에서 이루어진다. 논의를 더욱 단순화하기 위하여 각 階層에는 한 사람씩만 있다고 가정한다.

富裕層과 庶民層을 上添字로 각각 R, D로, 必須品과 奢侈品을 下添字로 각각 1, 2로 표기하자. 富裕層과 庶民層의 두 財貨에 대한 初期賦存을  $(W_1^R, W_2^R)$ ,  $(W_1^D, W_2^D)$ 로 표기한다. 물론 庶民層의 초기부존은 富裕層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

富裕層이 消費하는 必須品과 사치품 수량을 각각  $C_1^R, C_2^R$ 이라 하면 富裕層의 選好는 다음과 같은 效用函數로 표시된다.

$$(1) U^R = U^R(C_1^R, C_2^R)$$

이 效用函數는 2階微分可能하며 限界效用이 正이고 오목한 함수라고 가정한다.

庶民層이 消費하는 必須品과 奢侈品 수량을 각각  $C_1^D, C_2^D$ 라 하면 庶民層의 選好는 다음과 같은 效用函數로 표시된다.

$$(2) U^D = U^D(C_1^D, C_2^D, C_2^R), \text{ 단 } U_3^D = \frac{\partial U^D}{\partial C_2^R} < 0$$

(2)식에서  $U_s^D < 0$ 은 부유층이 향락소비를 많이 할수록 庶民層은 負의 效用을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 相對的 貧困感이 이  $U_s^D < 0$ 으로 포착되어 있다.  $U^D(\cdot)$  함수도  $U^R(\cdot)$  함수와 같은 正規的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奢侈品 1단위의 必須品 數量으로 표시한 相對價格을  $P$ 라 하자. 그러면 두 계층의 豫算制約式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3) C_1^i + PC_2^i = W_1^i + PW_2^i, i = R, D$$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 자기의 效用을 극대로 하고자 한다. 두 재화시장은 完全競爭市場이다. 따라서 개별경제주체는 市場價格  $P$ 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 소비량을 조절함으로써 效用을 극대로 한다.

## 2. 基本模型의 完全競爭均衡

富裕層의 最適化 問題를 라그랑주式으로 만들면

$$\mathcal{L} = U^R(C_1^R, C_2^R) + \lambda(W_1^R + PW_2^R - C_1^R - PC_2^R)$$

이 된다. 1階條件을 구하면

$$\left. \begin{aligned} (4-1) \quad \frac{\partial \mathcal{L}}{\partial C_1^R} &= U_1^R - \lambda = 0 \\ (4-2) \quad \frac{\partial \mathcal{L}}{\partial C_2^R} &= U_2^R - \lambda P = 0 \end{aligned} \right\} \rightarrow \frac{U_1^R}{U_2^R} = \frac{1}{P}$$

$$(4-3) \quad \frac{\partial \mathcal{L}}{\partial \lambda} = W_1^R + PW_2^R - C_1^R - PC_2^R = 0$$

(4-1), (4-2)式은 必須品과 奢侈品과의 限界代替率이 두 財貨의 價格比와 같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消費者均衡條件

$$\frac{U_1^R}{U_2^R} = \frac{1}{P}$$

로 귀착된다.

庶民層의 最適化問題를 라그랑주式으로 만들면

$$\mathcal{L}^D = U^D(C_1^D, C_2^D, C_2^R) + \mu(W_1^D + PW_2^D - C_1^D - PC_2^D)$$

이 된다. 庶民層의 選擇變數는 물론  $C_1^D, C_2^D, \mu$ (라그랑주乘數)이다. 富裕層의 奢侈品消費量  $C_2^R$ 이 庶民層에 負의 效用을 안겨 주지만 庶民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최적화문제의 1階條件은 모서리 解(corner solution)를 배제할 때 (4)식과 유사한

(5)식으로 표시된다.

$$\left. \begin{aligned} (5-1) \quad \frac{\partial \mathcal{L}^D}{\partial C_1} &= U_1^D - \mu = 0 \\ (5-2) \quad \frac{\partial \mathcal{L}^D}{\partial C_2} &= U_2^D - \mu P = 0 \end{aligned} \right\} \rightarrow \frac{U_1}{U_2} = \frac{1}{P}$$

$$(5-3) \quad \frac{\partial \mathcal{L}^D}{\partial \mu^D} = W_1^D + PW_2^D - C_1^D - PC_2^D = 0$$

經濟의 均衡條件은 각 財貨市場이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는 條件으로 나타난다.

$$(6) \quad C_1^R + C_1^D = W_1^R + W_1^D$$

$$(6)' \quad C_2^R + C_2^D = W_2^R + W_2^D$$

(6)식이 성립하면 왈라스法則에 의하여 (6)'식은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基本模型의 (完全) 競爭均衡은 (4), (5), (6)식을 만족하는 消費과 價格의 組合( $C_1^R, C_2^R, \bar{C}_1^D, \bar{C}_2^D, \bar{P}$ )이다. 未知數 다섯에 方程式이 다섯이므로 방정식 간에 函數的 從屬性이나 矛盾性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유일한 競爭均衡이 존재한다.

### 3. 競爭均衡의 Pareto 非最適性

위에서 다룬 基本模型의 競爭均衡은 一見 파레토最適인듯이 보인다. (4)식과 (5)식에서

$$(7) \quad \frac{U_1^R}{U_2^R} = \frac{U_1^D}{U_2^D}$$

가 성립되어 두 財貨에 대한 두 階層의 限界代替率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7)식은 相對的 貧困感이 없을 경우의 파레토最適條件이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형에서의 파레토最適條件은 아니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基本模型의 파레토最適配分을 따져 보자. 파레토最適配分은 한 계층의 效用水準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다른 계층의 效用이 극대가 되도록 賦存財貨를 配分할 때 이루어진다. 즉,

$$(8) \quad \text{Max } U^R(C_1^R, C_2^R)$$

$$\text{s. t. } U^D(C_1^D, C_2^D, C_2^R) = \bar{U}^D$$

$$C_1^R + C_1^D = W_1^R + W_1^D$$

$$C_2^R + C_2^D = W_2^R + W_2^D$$

의 解가 파레토最適配分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최적화문제의 라그랑주식은

$$f = U^R(C_1^R, C_2^R) + \lambda_1 \{U^D(C_1^D, C_2^D) - U^D\} + \lambda_2 (W_1^R + W_1^D - C_1^R - C_1^D) + \lambda_3 (W_2^R + W_2^D - C_2^R - C_2^D)$$

이고 일계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9-1) \quad \frac{\partial f}{\partial C_1^R} = U_1^R - \lambda_2 = 0$$

$$(9-2) \quad \frac{\partial f}{\partial C_2^R} = U_2^R + \lambda_1 U_3 - \lambda_3 = 0$$

$$(9-3) \quad \frac{\partial f}{\partial C_1^D} = \lambda_1 U_1^D - \lambda_2 = 0$$

$$(9-4) \quad \frac{\partial f}{\partial C_2^D} = \lambda_1 U_2^D - \lambda_3 = 0$$

$$(9-5) \quad C_1^R + C_1^D = W_1^R + W_1^D$$

$$(9-6) \quad C_2^R + C_2^D = W_2^R + W_2^D$$

(9-1)식에서 (9-4)식까지는 다음 식의 파레토最適條件으로 정리된다.

$$(10) \quad \frac{U_1^R}{U_2^R + \frac{U_1^R}{U_1^D} U_3^D} = \frac{U_1^D}{U_2^D}$$

相對的 貧困感이 없을 경우 ( $U_3=0$ ) (10)식은 (7)식과 같다. 그러나 基本模型에서  $U_3 < 0$  이므로 (10)식은 (7)식과 다르다. 즉, 상대적 빈곤감을 수용한 基本模型에서 競爭均衡은 파레토最適이 아닌 것이다.

#### 4. 所得再分配政策과 Pareto 最適性

파레토 最適條件 (10)식을 競爭均衡條件 (7)식과 비교해 보면 完全競爭下에서 富裕層이 지나치게 많은 奢侈品消費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社會的으로는

$$\frac{U_1^D}{U_2^D} = \frac{U_1^R}{U_2^R + \frac{U_1^R}{U_1^D} U_3^D} > \frac{U_1^R}{U_2^R}$$

여서 庶民層이 必須品 1단위를 적게 소비하면서 받고자 하는 奢侈品 수량(限界代替率)이 富裕層의 그것보다 커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市場機構에 放任할 때에는 富裕層의 奢侈品 消費가 外部非經濟를 일으키는 것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必須品과 奢侈品 간의 限界 대체율이 富裕層과 서민층 모두 같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外部非經濟를 일으키는 富裕層의 奢侈性消費에 대하여 Pigou 型租稅를 부과하는 것이 파레토最適을 달성하는 한 가지 유력한 政策이 된다.

富裕層이 消費하는 奢侈品 1단위에 必須品 t單位씩 消費稅가 부과된다 하자. 그러면 富裕層의 豫算制約式은

$$(3)' C_1^R + (P+t) C_2^R = W_1^R + P W_2^R, t > 0$$

가 된다. 이 制約式下에 富裕層이 效用을 극대화하는 문제를 앞에서와 같이 풀면 完全競爭均衡은 (7)식 대신

$$(7)' \frac{U_1^R}{U_2^R - t \cdot U_1^R} = \frac{U_1^P}{U_2^P}$$

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 식을 (10)식과 비교해 볼 때

$$(11) t = -\frac{U_3^P}{U_1^P} > 0$$

이면 競爭均衡이 파레토最適임을 알 수 있다. 相對的 貧困感을 포착하는  $U_3$ 의 절대 값이 클수록 稅率  $t$ 의 값은 높아진다. 富裕層의 奢侈品 消費에만 課稅하면 富裕層과 庶民層의 所得隔差가 완화된다. 이처럼 衡平을 제고시키는 經濟政策이 파레토 效率性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다루는 基本模型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기존의 純粹交換 經濟模型들이 한결같이 競爭市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 모두 파레토最適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다룬 Pigou 型租稅는 엄밀한 의미에서 所得再分配政策이 아니다. 富裕層에 課稅만 했지 그 稅收를 庶民層에 再分配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 稅收로 인한 財政黑字를 어떻게 처분하는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논의가 불완전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쉽게 보완할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富裕層이 소비하는 奢侈品 1단위에 必須品  $t$ 단위씩 消費稅를 부과한다고 하자. 이제 庶民層이 소비하는 奢侈品 1단위에 必須品  $\tau$ 단위씩 補助金을 지급한다고 하자. 그러면 庶民層의 豫算制約式은

$$(3)'' C_1^P + (P-\tau) C_2^P = W_1^P + P W_2^P, \tau > 0$$

가 된다. 새로운 制約式下에 최적화문제를 다시 풀면 完全競爭均衡은 (7)식 대신

$$(7)'' \frac{U_1^R}{U_2^R - t U_1^R} = \frac{U_1^P}{U_2^P + \tau U_1^P}$$

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 식은

$$\frac{U_1^R}{U_2^R - (t+\tau) U_1^R} = \frac{U_1^P}{U_2^P}$$

로 정리되므로 (10)식과 비교해 볼 때

$$(12) t + \tau = -\frac{U_3^P}{U_1^P}$$



이때 競爭均衡이 파레토最適이다. 이제 未知數  $\tau$ 가 하나 늘었으므로 별도의 方程式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는 政府豫算의 均衡條件으로 메꾸어진다. 정부가 富裕層으로부터 징수하는 稅金은 庶民層에 지급하는 補助金과 같아야 한다. 所得再分配政策下에서의 富裕層과 庶民層의 均衡奢侈品消費量을 각각  $\bar{C}_1^R, \bar{C}_2^R$ 라 하면

$$(13) \quad t\bar{C}_2^R = \tau\bar{C}_2^D$$

가 政府豫算의 均衡條件이다. (11)식 대신 (12), (13)식을 추가하면 所得再分配下의 競爭均衡을 나타내는 模型體系는 완성된다. 이 競爭均衡의 속성은 (11)식 하에서와 똑 같다.

<例>

부유층의 효용함수는  $U^R = \sqrt{C_1^R C_2^R}$ , 부존은  $W^R = (W_1^R, W_2^R) = (7, 9)$ , 빈곤층의 효용함수는  $U^D = \sqrt{C_1^D C_2^D} / C_2^R$ , 부존은  $W^D = (W_1^D, W_2^D) = (3, 1)$ 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競爭均衡은  $P=1, C_1^R = C_1^D = 8, C_1^D = C_2^D = 2$ 로 계산된다. 이 경쟁균형은 파레토 최적적이지 않다.

本文에서 제시하는 Pigou 型 租稅政策에 의하면 부유층이 소비하는 사치품 1단위에 필수품  $t = \frac{1}{5}$  단위씩 소비세를 부과하고 빈곤층이 소비하는 사치품 1단위에 필수품  $\tau = \frac{2}{5}$  단위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결과  $P=1, (C_1^R, C_2^R) = (8, \frac{20}{3}), (C_1^D, C_2^D) = (2, \frac{10}{3})$ 의 경쟁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배분은 파레토 최적적이다. 조세에 의한 재분배정책으로  $C_2^D$ 는 재분배정책이 없을 경우의  $\frac{1}{4} C_2^R$ 에서  $\frac{1}{2} C_2^R$ 로 증가하였다.

정부개입이 없을 경우의 競爭均衡이 파레토 非最適이므로 부유층의 후생이 감소되는 재분배정책이 합리화된다.

#### IV. 基本模型의 擴張

앞 절에서 다룬 基本模型은 여러 가지 面에서 單純粗野한 모형이다. 基本模型에 生産活動을 도입하여 生産經濟模型으로 확장할 수 있다. 富裕層과 庶民層 외에 中産層을 도입하거나 각 계층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도 쉽게 다룰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 靜態模型을 動態模型으로 일반화시켜 經濟成長까지 다룰 수도 있다. 어떻게 수정·확대시킨다 하더라도 일부 못가진 階層이 (2)식과 같은 相對的 貧困感을 가지는 한 完全競爭均衡이 파레토最適이 아니며, Pigou 型租稅로 衡平을 제고시키는 再分配政策이 파레토最適이라는 基本定理는 不變이다. 아주 단순하게 生産活動을 도입한 生産모형에서 이를 확인해 보자.

이제 두 재화는 자본(K)과 노동(L)을 사용하여 생산된다. 必須品の 생산량을  $Y_1$ , 奢侈品의 生産量을  $Y_2$ ,  $i$ 부분에 투입되는 자본량과 노동량을 각각  $K_i$ ,  $L_i$ 라 하면 두 재화의 生産技術은

$$(14) Y_1 = F(K_1, L_1)$$

$$(15) Y_2 = G(K_2, L_2)$$

로 표시된다.  $F(\cdot)$ 와  $G(\cdot)$ 는 온갖 正規的인 속성을 갖는 1次同次的 新古典派的 生産函數라고 가정한다.

富裕層은 資本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資本은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노동은 庶民層이 완전비탄력적으로 공급한다.

資本과 노동의 두 要素市場은 完全競爭市場이다.  $i$ 産業에서 資本과 노동 서비스에 제공하는 實質賃貸料과 實質賃金을 각각  $r_i$ ,  $w_i$ 라 하자.

富裕層의 最適化問題는

$$\begin{aligned} \text{Max } U^R(C_1^R, C_2^R) \\ \text{s.t. } C_1^R + PC_2^R = r_1 K_1 + P r_2 K_2 \\ K_1 + K_2 = \bar{K} \end{aligned}$$

로 표시된다.  $\bar{K}$ 는 富裕層이 가지는 總資本量이다. 이 最適化問題의 1계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6-1) \frac{U_1^R}{U_2^R} = \frac{1}{P}$$

$$(16-2) r_1 = P r_2$$

$$(16-3) C_1^R + PC_2^R = r_1 K_1 + P r_2 K_2$$

$$(16-4) K_1 + K_2 = \bar{K}$$

(16-2)식은 資本收益率이 두 産業에서 均等하도록 資本을 배분하는 것을 나타낸다. 庶民層의 最適化問題는

$$\begin{aligned} \text{Max } U^P(C_1^P, C_2^P, C_2^R) \\ \text{s.t. } C_1^P + PC_2^P = w_1 L_1 + P w_2 L_2 \\ L_1 + L_2 = \bar{L} \end{aligned}$$

로 표시되고 1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7-1) \frac{U_1^P}{U_2^P} = \frac{1}{P}$$

$$(17-2) w_1 = P w_2$$

$$(17-3) C_1^p + P C_2^p = w_1 L_1 + P w_2 L_2$$

$$(17-4) L_1 + L_2 = \bar{L}$$

要素市場이 完全競爭市場이므로 각 요소는 자기의 限界生産物만큼 補償을 받으며 完全고용된다.

$$(18-1) w_1 = F_2(K_1, L_1), r_1 = F_1(K_1, L_1)$$

$$(18-2) w_2 = G_2(K_2, L_2), r_2 = G_1(K_2, L_2)$$

必須品市場의 均衡條件은

$$(19) C_1^R + C_1^p = Y_1 = F(K_1, L_1)$$

이다. (18), (19)식이 충족되면 瓦拉斯法則에 의하여 奢侈品市場도 均衡을 이룬다.

이 경제의 完全競爭均衡은 (16)식에서 (19)식까지 13方程式을 만족시키는 配分 및 價格의 13次元 벡타  $(\bar{C}_1^R, \bar{C}_2^R, \bar{C}_1^p, \bar{C}_2^p, \bar{P}; \bar{L}_1, \bar{L}_2, \bar{K}_1, \bar{K}_2, \bar{w}_1, \bar{w}_2, \bar{r}_1, \bar{r}_2)$ 이다. 이 競爭均衡이 帕累托最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帕累托最適配分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最適化問題를 풀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Max } U^R(C_1^R, C_2^R) \\ \text{s.t. } \bar{U}^p = U^p(C_1^p, C_2^p, C_2^R) \\ C_1^R + C_1^p = F(K_1, L_1) \\ C_2^R + C_2^p = G(K_2, L_2) \\ K_1 + K_2 = \bar{K} \\ L_1 + L_2 = \bar{L} \end{aligned}$$

이 最適化문제의 1계조건은

$$(20-1) \frac{U_1^R}{U_2 + \frac{U_1^R}{U_1^p} U_3} = \frac{U_1^p}{U_2^p}$$

$$(20-2) \frac{F_2}{F_1} = \frac{G_2}{G_1}$$

$$(20-3) \frac{U_1^p}{U_2^p} = \frac{G_1}{F_1}$$

$$(20-4) C_1^R + C_1^p = F(K_1, L_1)$$

$$(20-5) C_2^R + C_2^p = G(K_2, L_2)$$

$$(20-6) K_1 + K_2 = \bar{K}$$

$$(20-7) L_1 + L_2 = \bar{L}$$

이다. (20-2)식은 노동과 자본의 限界技術代替率<sup>1)</sup>이 두 재화 생산에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20-3)식은 두 재화에 대한 庶民層의 限界代替率<sup>2)</sup>이 두 재화의 限界轉換率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파레토최적조건에 의하면

$$\frac{U_1^R}{U_2^R + \frac{U_1^R}{U_1^P} U_3} = \frac{U_1^P}{U_2^P} = \frac{G_1}{F_1}$$

인데 競爭均衡條件<sup>3)</sup>에 의하면

$$\frac{U_1^R}{U_2^R} = \frac{U_1^P}{U_2^P} = \frac{G_1}{F_1}$$

R 이다. 따라서 完全競爭均衡은 파레토最適이 아니다. 앞 절에서와 같은 Pigou 型租稅를 통한 所得再分配政策이 파레토最適성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V. 結 論

相對的 貧困感을 消費面에서의 外部非經濟로 把握할 때 衡平을 提高시키는 적절한 所得再分配政策이 社會正義라는 經濟外的 側面은 물론 經濟的 效率性 側面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本論文의 主要內容이었다. 이를 위해 사용된 模型은 厚生經濟學 클라스에서 다루는 정도로 아주 단순한 형태모형이었다. 그러나 筆者는 이 단순한 模型의 理論的·政策的 示唆點을 강조하고자 한다. 主流經濟學界에서 衡平和 效率은 으레 相衡關係에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리고 衡平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社會主義國家에서 볼 수 있는 非效率,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볼 수 있는 福祉病에 빠져들기 마련이라고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 왔다. 지나치게 衡平을 추구할 때 福祉病에 걸려 經濟가 彈力을 잃는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先成長·後分配의 論理로 衡平和 福祉가 실종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衡平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이 지나친 衡平에 따르는 副作用만을 高唱한다는 것은 늑대가 온다고 허풍떠는 소년과 같은 愚를 범하는 것이다.

本論文의 基本模型에서 衡平을 나타내는 指數는 富裕層의 享樂財에 대한 消費稅率  $t$ 에 압축되어 있다. (11)식에서 본 바와 같이  $t$ 가  $-U_3^R/U_1^R$ 를 초과하면 衡平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效率性이 해쳐지는 경우로서 전통적인 이론에서와 같이 衡平和 效率이 相衡關係에 있다. 그러나  $t$ 가  $-U_3^R/U_1^R$ 에 못미치면 衡平을 도외시한 나머지 效率性이 해쳐지는 경우로서 衡平和 效率이 補完關係에 있다. 相對的 貧困感이 큰 우리 나라의 상황을 이 두 경우 중의 어느 하나로 近似시킨다면 어느 경우일 것인가는 自明하다.

公平分配에 대한 欲求가 견잡을 수 없이 폭발하기 전에 衡平優先의 政策을 슬기롭게 펴 나가야 할 것이다.

言論이나 一般輿論에서는 종종 「가진 자」들의 社會的 責任感과 節制를 강조한다. 이는 基本模型으로 설명한다면 富裕層이 (8)식과 같은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最適化問題를 풀도록 道德的 說得을 하는 셈이다. 부유층이 啓發된 利己心(enlightened self-interest)을 가지고 (8)식과 같은 문제를 푸는 자세를 보여 왔다면 우리 사회에 相對的 貧困感이 오늘날과 같이 부풀지 않았을 것이다. 퇴폐적인 享樂文化에의 沒入을 막기 위해 道德心昂揚campaign을 벌여야 하겠지만 效率과 衡平을 높이는 데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內實있는 再分配政策이 大宗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아직도 先成長—後分配의 신기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本論文에서 다룬 模型이 經濟成長을 다루지 못하는 靜態模型이라는 데에 주목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나친 資本蓄積과 그에 따른 高度成長이 파레토非最適이라는 것은 1960년대 經濟成長論에서 벌써 밝혀진 바 있다. 도약단계에 高速成長의 길을 정신없이 질주해 간 日本의 국민들이 아직도 「가난한 富者」로서 사회의 不公平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國富民貧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말고 衡平和 民生福祉에 진지하게 눈 돌릴 때다.

## 參 考 文 獻

- 金大模·安國臣, “韓國의 所得分配 및 그 決定要因과 分配問題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 1987.
- 李滿雨, 厚生經濟學, 法文社, 1985.
- 鄭英一, “전후세대의 경제의식,”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1987. 11.
- A.M. Okun,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5.